웰빙바람 타고 식품용 소비 눈에 띄게 증가
국산약재 강세행렬, 수입따라 시세 들쑥날쑥

웰빙바람이 한방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한약재도 식품원료로 소비되는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덩달아 국산한약재 시세도 전반적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다.

집에서 쉽게 차로 마실수 있는 한방차 재료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는 물론이고, 황기, 당귀까지도 웰빙한방을 슬로건으로 내건 음식점들에서의 소비량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게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산약재의 시세가 전박적인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데 반해 품질은 예년에 비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상품, 중품, 하품의 등급별 품질차가 고르지 못하고, 굵은것과 잘은 씨알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냐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는게 특징. 시세 등락폭도 들쭉날쭉 고르지 못한 것도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서의 한약유통양상이다. 과거엔 한 품목의 시세가 오르거나 또는 하락하더라도 1,2백원 또는 5백원 정도의 소폭이었으나 최근엔 일부 상인들에 의해 물량이 집중되면서 한 두달 사이에도 1천~ 2천원까지 폭등, 폭락을 되풀이하며 기복이 심한 경향이 뚜렷하다.

국산시세 상보합세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유통 실명제 시행과 함께 한약재 원산지 및 생산지 표시준수여부 단속에 나서면서 기존에 국산을 취급하던 한약상들에서 가시적으로라도 국산물량을 전시용으로 확보해놔야 하기 때문에 소량씩이지만 그같은 상회들에서의 국산구입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면 한시적이긴 하나 국산물동량이 반짝 늘어나면서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서다.

구기자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구기자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구기자가 1만3천원, 진도산은 1만6천원선. 1만6천원에서 1만9천원선을 형성했던 지난 6,7월 시세보다 다소 하락세다. 햇것이 출하돼 나오면서 시세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시장 안에서는 최근 국산과 흡사한 수입산 구기자가 최근 들어와 청양산지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햇것 출하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국산과 비슷한 형태의 수입산이 국내 반입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시장의 일부 상회에서는 수입산과 비교되는 국산매지, 일명 통통매지(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국산에 비해 몸통이 통통한 것)만을 취급하기도 한다.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산을 의식해서다. 국산과 비슷한 매지의 수입구기자 시세도 처음에는 근당 약 8천원선을 형성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7천원선으로 시세 빠진 상태라고. 통통매지는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신품종인데 양이 적고 수입구기자와 확실히 구별되는 형태상 특징이 있다. 가을 구기자일수록 색깔도 좋고 수입산이 흉내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햇것 출하시기에도 국산 구기자 시세는 상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활 당귀 값 상승세 영향으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당귀와 산지가 같은 덕에 당귀 물량을 사들이면서 강활까지 같이 사들인 상인들 영향으로 강활값은 지금 상합세다.

강활은 당귀보다 물량도 적고 산지도 한정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가격만들기'가 더 쉬운 품목이라는게 시장 상인들의 설명. 10월초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강활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북강활이 5천8백원, 남강활이 6천5백원선으로 지난 6,7월 4천3백원(북강활), 5천8백원(남강활) 시세보다 약 1천5백원 폭, 당초 강활 평균시세가 약 3천원대인점을 감안하면 두배로 껑충 오른 셈이다. 햇것 출하시기가 가깝지만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 햇것 출하로 인한 시세하락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귀 올 상반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려온 당귀 값의 상보합세 행진은 햇것 출하시기가 멀지 않은 10월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년엔 불과 근당 5, 6백원선이었던 생당귀 시세가 지금은 1천2백~1천4백원 정도. 지금 시세가 워낙 높게 형성돼 있어 햇당귀가 나와도 현 시세 이하로 나올 물량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의 토당귀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토당귀 통자가 6천원, 절토당귀는 근당 7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당귀도 8천원(통), 9천원(절) 선으로 상보합세 형성하고 있다. 당귀 상보합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맥문동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심맥문동 중맥이 9천원, 대맥이 1만1천원 선이며, 밀양산은 거심 중맥이 1만1천원, 거심 대맥이 1만3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막맥은 7천원선이다. 최근 유통되는 맥문동 품질은 예년과 많이 다르다. 특맥 또는 대맥이라고 시중 유통되는 맥문동은 특맥 또는 대맥속에 중맥과 씨알이 잘은 것, 심지어는 막맥까지도 섞여있어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상인들의 푸념이다. 대맥에서 막맥까지 섞인 비율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상황.

천마 물량이 없어 정확한 시세도 잡기 어렵다.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는 근당 약 4만5천원선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시세가 저렴할 때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사람은 지금 근당(6백g기준) 3만원에도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량이 귀해 4만5천원에도 산지에서 조차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시세차가 들쑥날쑥한 상황. 천마 자연산은 가을에, 재배산은 주로 봄에 수확돼 나온다. 올봄 천마 햇것 출하량은 예년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데도 식품회사들을 중심으로 식품원료로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중국에서도 천마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미자 햇것 출하가 시작된지 약 20일경 지났지만 산지에서의 출하가 순조롭지 않은 편이다. 소비량 증가와 함께 재배면적도 급속도로 증가한 품목이지만 출하량의 거의 대부분이 생것으로 출하되는 상황이며, 말린 상태의 약재 '오미자'로 출하돼 나오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 시세도 덩달아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재 오미자 물동량 부족과 상보합세 경향은 중국 현지에서도 마찬가지. 중국 내에서도 식품원료로 오미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세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수오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2천원(상품), 8천원(중품), 4천원(하품) 선으로 지난 5,6월 시세보다 약 1천~2천원 폭으로 오른 상황이며, 품질별 가격 편차도 심한편이다. 하수오는 산약과 함께 영주, 안동 지역의 몇몇 상인들에 의해 시세조종되고 있는 품목. 수입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면 시세 내렸다가 물량이 다소 부족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시세가 다시 껑충 오르기 마련. 이렇게 되면 햇것 출하기에도 산지 농민들은 시중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요구하며 물량을 내놓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작약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작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5천5백원에서 7천원 선까지 다양하다. 특작약은 근당 9천원선. 작약의 품질은 굵기나 색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특작약의 경우는 물량이 극히 소량으로 제한돼 있는데, 전체 작약 물량이 5천근 정도라면 그중 특작약은 겨우 두 짝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작약을 제외한 나머지는 색이 선명하고 절단면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짜투리 약재까지 섞인 비율에 따라 다양한 가격차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처음부터 상, 중, 하 크기별로 분류 선별해 절단 가공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상중하 모두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가공해서 섞인 비율에 따라 엇비슷한 가격대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호색 10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통자가 1만4천원, 절은 1만6천원선으로 상보합세. 국산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인지 근당 9천~1만원 선을 유지하던 현호색 시세가 지금은 5천원 폭으로 껑충 뛰었다. 소비량도 그리 많지 않고 생산량 역시 그리 많지 않은 품목인 탓에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익지인 생산량 대폭 감소

10월초 현재 패모가 kg당 3.6$로 한 달 전 보다 10% 상승세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귀는 4$, 일천궁은 1.9$ 선이다. 백출은 상품이 3.7$ 수준인데 비해 중품은 2.5$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황련도 지난달 보다 약 10%가량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10월초 현재 안국 약재시장에서 거래되는 황련 시세는 kg당 6.2$ 선이다.

한편 국내에서 식품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세도 상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오미자는 중국 현지에서도 소비량 급증으로 상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10월 초 현재 안국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배오미자 시세는 kg당 11$ 선이며, 야생 오미자는 그보다 낮은 7~8$ 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국에서는 유황성분 검사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며 고민 중이라는 소문..

〈www.chinaherb21.com〉